

제3절 민속예능*

1. 민속놀이

1) 줄다리기

(1) 유래

줄다리기는 마을사람들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총화를 다지며 새해의 안녕과 풍년을 빌고 재액을 막는 제의에서 비롯된 놀이로서, 1년의 행운을 바라는 집단적 의식의 주기적 발현이다. 줄다리기는 500여 년 전의 『통국여지승람』의 사료에서 볼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중국에서는 한대(기원전 206~기원후 220년)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원초 이래의 문화현상으로 보인다. 양나라 종림(宗悤)이 초나라 세시의 풍물고사를 적은 『형초세시기』를 보면 중국에서는 한식 때 죽피로 동아줄을 꼬아 수리에 걸쳐놓고 북을 치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시구지희(施句之戲)라는 줄다리를 하였다고 한다.

당의 봉연의 『통씨견문기』에는, 발하(拔河)라 부르는 줄다리기의 내용이 나와 있다.

발하를 색구라 하였으며, 양·한의 풍속으로 정월 보름날에 줄다리를 하였다. 옛적에는 대껍질을 사용하였고 그후에는 대마로써 줄을 꼬아 그 길이가 4,000~5,000장이고 양쪽 머리에 나누어 작은 줄 수백 가닥을 엮어매어 두 편으로 나누어 당기며 큰 줄을 걸친 가운데에 큰 기를 세워 경계로 하고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지르며 끌어당기는 편이 이겼다. 이름을 발하라 한다.

일본·미얀마·한국 등 여러 나라 줄다리기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발하란 강을 사이에 두고 행한 데서 생긴 이름이며, 행해진 목적은 풍양기원을 위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국세시기』 상원조에는 다음과 같은 줄다리기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호서 풍속에 햇불싸움과 편을 갈라 줄을 서로 잡아당긴 줄다리가 있었으며 끌려가지 않는 편이 이기고 풍년을 차지한다. 이 놀이는 옛날의 발하회와 같으며 경기지방 풍속도 그러하며 중들도 줄다리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 8월조에도 제주도의 줄다리기에 기록이 보인다.

제주도 풍속에는 해마다 8월 보름날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좌우로 편을 갈라 튼 줄의 양

* 제3절은 최덕원(崔德源) 집필임.

쪽을 잡아당겨 승부를 겨룬다. 줄이 만약 중간에서 끊어지면 양편이 모두 땅에 넘어지고 구경꾼들은 크게 웃는다. 이를 조리지희라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헌종 때의 실학자 오주 이규경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보면, “정월 대보름에 줄을 당겨 승부로 그해 농작의 풍흉을 점친다.”란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줄다리기는 주로 명절 제의 뒤에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오신(娛神)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암줄(서편)과 수줄(동편)의 목줄 고리의 음양결합으로 생산과 풍요를 가져오며 풍우의 주관자인 용을 끌어당기는 은유의 행위로서, 고대로부터 풍년을 예측하고 운수도 점치는 공감주술의 농경의식으로 전승되어왔다.

특히 순천의 줄다리기는 옥천과 이사천 또는 마을 사이를 흐르는 시내(도랑)와 동네의 샘(우물) 등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다. 이처럼 줄다리기는 물줄기를 얻어 두레의 협동과 대동의 힘으로 풍요를 바라는 기속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 성

순천의 큰 놀이는 줄다리기였다. 남문 곁에 있는 옥천을 사이에 두고 남문 밖과 성안으로 나누어진 줄다리기와, 인안동 대대마을의 동편·서편의 줄다리기, 대대마을과 해룡면 해창마을의 줄다리기 그리고 덕흥동 오림마을의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줄다리기 등의 큰 줄판이 있었다. 남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줄다리기는 성밖을 순천 남문외진이라 하고, 이 줄에는 문밖의 남쪽에 있는 장천·저전 마을과 그 이남의 도사·별량·여수 등지에 거주하는 줄다리기꾼들이 동원되었고 편장은 좌수가 맡았다. 한편 성내를 남문내진이라 하고 문안과 북편에 있는 성내·서면·황전·월등·쌍암의 줄다리기꾼들이 모여들었고 편장인 부사가 직접 줄등에 타고 지휘를 하였다.

대대마을의 줄다리기는 마을 중간에 있는 도랑을 사이에 두고 서편과 동편으로 나누어진다. 도랑을 따라 골목길이 있는데 이 마을길이 줄다리기 장소였다. 서편에는 신평·안지·가몽·수동·월평·우산·별량1구 마을이 합세하며, 동편에는 교량·하내·금전·신장·신석·대룡·덕월·오천동이 합세하여 굿물이 동원된 큰 굿판을 이루었다. 편장은 각 편의 선소리꾼이 줄에 타고 지휘를 했다.

덕흥동 오림마을의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줄다리기는 마을 중간에 있는 큰 샘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다. 윗마을에는 고령 신씨(30호 정도)들이 살고 있었으며 아랫마을에는 동복 오씨(30호 정도)들이 살고 있어, 줄다리로 씨족세를 가름하기도 하였다. 편장은 주로 윗마을은 신씨 문중에서, 아랫마을은 오씨 문중의 유지가 줄꾼들을 지휘하였다. 원래 수줄은 남성, 암줄은 여성들이 끄는 남녀협동 놀이였으나 점차 남성들의 놀이로 변했다. 근래에는 남녀가 혼성하고 이웃마을이 합세해서 한다.

이렇듯 줄다리기는 온 마을사람들이 동원되고 마을의 유지가 편장이 되어 총지휘를 하며 모든 뒷바라지를 해준다. 부락의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고 다니면서, 줄다리기꾼을 모집하며 그들의 사기와 기세를 올려준다. 밤이 되면 횃불을 밝혀 줄꾼과 줄을 보호한다.

(3) 제 작

원래는 마을 당제가 끝난 후에 걸립을 해서 깨끗한 집의 짚단이나 새끼를 꼬아 줄을 만들었

으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미리 한가한 시간에 줄을 꼬아놓는다.

오림마을에서는 정월 보름 자시에 당제를 마치고 바로 줄을 꼬아 초저녁부터 줄다리를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미리 줄을 꼬아 몰래 감추었다가 보름날 밤에 줄다리를 했다. 근래에는 윗마을과 아랫마을에서 각각 줄을 꼬게 하여 마을 유지들이 좋은 줄을 선정해서, 암줄과 수줄의 구별 없이 외줄을 사용하기도 한다.

남문내외진과 대대마을은 이제 당산제를 지내지 않고 순수 민간오락으로 이루어진 민속 경기놀이로 음력 동짓달 보름쯤에 아이들이 한 가닥 줄로 된 새끼줄로 골목 줄다리를 한다. 이것이 점점 커져서 선달 그믐쯤이면 청장년들이 세 가닥 줄로 된 동아줄로 줄을 당긴다. 정월 보름이 가까워지면 아홉 가닥을 엮어 스물일곱 가닥의 큰 동아줄을 만들기 위해 각 호에서 짚단을 거두거나 부유한 집에서 다섯 마지기 논에서 나오는 많은 짚을 제공받기도 한다.

큰 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닥줄을 엮어 나란히 놓고 줄 사이에 곁줄을 놓고 다시 엮어 묶는다. 줄을 꼰 때는 서로 비밀리에 작업을 하며 줄가닥수를 모르게 하고 여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줄의 앞을 타원형으로 구부리고 새끼줄로 칭칭 동여 다듬어서 목줄을 만든다. 보통 서편의 암줄 고리를 크게 만들어 수줄의 작은 목줄을 넣고 비너목을 꼰도록 만든다. 비너목은 옛날에는 디딜방아 괴목을 꼰했으나 요사이에는 생나무 기둥을 사용한다. 곁줄은 원줄에 달아 줄꾼들이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한다. 줄이 완성되면 힘이 있도록 물을 뿌리거나 소금물을 뿌린다. 또한 줄을 지키기 위해 힘센 장년들이 파수를 보며 창고에 보관하거나 사랑방에 놓아두기도 한다.

(4) 시 기

당제를 지낸 날 밤에 줄다리를 한다. 순천지역의 당제는 주로 정월 보름날 자시(14일 밤 12시경)에 지낸다. 남문내외진과 오림마을은 정월 15일 밤에 줄을 당기고 대대마을은 16일에 한다. 그리고 신전놀이(승전놀이)는 17일까지 계속된다. 마을에 큰 변이 생기면 해를 걸러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월에 마을에 초상과 같은 불길한 일이 일어나면 날받이를 해서 다음날로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5) 줄다리기

시합의 첫부분은 아이들이 골목줄에서부터 시작한 줄다리가 정월 보름이 되면 여러 마을의 줄꾼이 동원되고 줄을 당길 자리가 결정된다. 농악을 앞세우며 줄다리기 선소리에 맞추어 줄을 메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는 줄 자리로 나간다. 보통 줄다리는 넓은 길을 이용하거나 보리밭이나 들판 또는 긴 강둑을 이용한다. 줄 자리에 나온 줄 앞에서 편장과 마을 유지들이 고사를 지내고 나면 본격적인 줄다리가 시작된다.

오림마을의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마을 어른들의 심사로 선택된 암수줄이 아닌 외줄로 줄다리를 하게 된다. 남문내외진과 대대마을에서는 암줄과 수줄을 연결시키기 위해 갖은 실랑이를 하며 수줄이 커서 암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시비와 야유, 음담을 하고 놀려준다. 상대방을 설득시켜 수줄을 암줄 고리 속에 넣으면 수줄에 참나무 기둥을 비너처럼 꼰다. 비너를 꼰으면 바로 줄다리가 시작되지만 쌍방간의 합의로 고사를 지낼 수도 있다. 줄을 줄 자리에 놓고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비너를 꼰고 줄다리기 준비가 되면 편장과 유지들이

나와서 수줄과 암줄이 교합된 앞에 상을 차리고 용신(줄신)과 지신에게 헌주와 구축을 올리며 풍농·풍어와 마을의 무탈을 기원한다.

편장의 신호로 줄다리가 시작되면 편장은 줄 위에 올라타고 지휘를 하거나 줄 중간쯤에서 영기로 지휘를 한다. 힘이 부치면 줄을 땅에 깔아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동네에서 가져온 술·밥을 먹고 시작한다. 줄다리기꾼들은 옆줄(접줄)에 매달려 신호에 따라 일제히 잡아당기면서 힘을 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줄다리기소리의 선소리에 맞춰 뒷소리를 내며 기세를 올린다. 남녀노소가 모두 줄에 매달리며 부자지간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사생결단을 낸다. 대대마을과 같은 큰 줄다리는 그 놀이가 장관이므로 이를 구경하기 위해 일가친척들이 며칠씩을 먹고 지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6) 줄다리기소리

줄다리기꾼이 모이도록 줄을 메고 마을을 돌아다닐 때, 줄을 메고 줄 자리에 나갈 때, 줄을 걸 때, 줄을 잡아당길 때, 승리해서 신전놀이를 할 때 농악을 치면서 줄다리기소리를 한다. 줄을 메고 나갈 때는 낮은 가락으로 이어지며 점차 빠른 가락인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다. 이를 채록하여 정리한다.

어얼사 더리덜렁	어얼사 더리덜렁
어따 야들야 줄걸러 메라	어얼사 더리덜렁
우리군사는 녹두장군	어얼사 더리덜렁
짹 짹 맞여라 호든 옛 사주께	어얼사 더리덜렁
술밭에는 팽이도 총총	어얼사 더리덜렁
대밭에는 마디도 총총	어얼사 더리덜렁
하늘에는 뱀(별)도 총총	어얼사 더리덜렁
꽃밭에는 꽃도 총총	어얼사 더리덜렁
꾸정물통에 호박씨 뗏네	어얼사 더리덜렁
과부요강에 똥덩어리 뗏네	어얼사 더리덜렁
짚시락 밑에는 새새끼 놀고	어얼사 더리덜렁
동쪽군사는 병원에 갔네	어얼사 더리덜렁
서쪽군사는 약물묵고	어얼사 더리덜렁
동쪽군사는 물개똥 찼네	어얼사 더리덜렁
서쪽군사는 약물쌌네	어얼사 더리덜렁
지야집(기와집) 몬당에 새새끼 논다	어얼사 더리덜렁
이겨주소 이겨주소	어얼사 더리덜렁
서편쪽(동편쪽)을 이겨주소	어얼사 더리덜렁
동반에는 말도 많다	어얼사 더리덜렁
김첨지네 살림살이	어얼사 더리덜렁
말도 많고 말도 많드라	어얼사 더리덜렁
김첨지네 넓적다리는	어얼사 더리덜렁
항상봐도 넓적허네	어얼사 더리덜렁
줄을 메고 나란히 서소	어얼사 더리덜렁

아니 우리가 돈을 내서 술넌놈들 보다는 절을 한 놈이 낫겠네
그럼 니가 가서 절을 한 자리씩 해 뿌려라
자 우리 서편에서 이겼으니 우리 동편 사람들은 다 마당뵈이를 잘 해줄 것이니 술이나 밥
들 많이 내놓고 다 그렇게 준비들 허소
못 허겠네
못 헐테면 전디봐라 한번 밀고 들어가마

애야디아 나허허애야 어허로여로 사나이로고나
놀다 가세 놀다나 가세 저 달이 떴다 지도록 놀다가세
애야디아 나허허애야 어허로여로 사나이로고나
잘도 노네 잘도 노네 우리군사 잘도나 노세
애야디아 나허허애야 어허로여로 사나이로고나
순한잔 먹어논께 힘이나네 같이 춤을 추고 뛰어보세
애야디아 나허허애야 어허로여로 사나이로고나

(7) 효험

줄다리기에서 승리한 편은 풍농과 풍어가 들고 패하면 흉년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임신이 못 하거나 요통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줄고리를 삶아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줄을 당나무나 선돌에 걸어놓고 방액을 하며 풍요를 기원한다. 선주가 줄을 배에 실으면 연중 고기떼를 끌어올린다고 한다.

남문내외진의 줄다리기에서 지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긴 편이 패한 마을사람들의 상여를 운상하듯 빈 상여를 메고 들어가 상여놀이를 하여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든 액운을 버리는 놀이를 한다. 또한 마을 유지들을 불러 술과 떡, 고기 등을 내놓도록 한다. 오림에서도 진 편이 찰밥과 떡을 대접한다. 대대마을에서는 진 편에게 이사천의 금전천의 보를 막게 한다. 붓물은 넓은 평야의 젓줄이므로 풍년과 관계 되는 작업이다.

이기면 상대방의 줄을 몰수하고 큰 절을 하게 하거나 술상을 차리게 한다. 또한 진 편이 마을에 들어가 마당뵈이를 해서 큰 돈을 뜯어낸다. 진 편은 진 편대로 내년의 결속을 다짐하고 이긴 편은 마을의 총화와 결속을 다지며, 서로 우의를 더욱 돈후하게 한다.